

## 2001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금년도 춘계 학회가 4월 13~14일 양일에 걸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등록인원이 사상 최대인 1,050명이었고, 구두발표 87편, 포스터 436편으로 모두 523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분자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의 젊은 차세대 고분자인들의 진지한 활동에 2000년대도 한국고분자학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이 확실히 보였다.

13일 오전 초청강연 및 총회는 한양종합기술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영하 박사의 상암고분자상 수상기념 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고, 현재 일본고분자학회 회장인 규슈대학의 Kajiyama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포스터 발표가 신소재공학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부터는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고분자합성, 고분자물성, 전지용고분자, 의료용고분자, 분자전자, 고분자 나노기술, 고분자센서 등 현재 국내외에서 매우 관심있는 분야의 발표장을 준비하였는데, 만석이 되어 회원들이 입실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80-200명 강의실이 만석이 되는 것은 이들 분야가 현재 매우 Hot Topic임을 실감나게 하였다. 또한, 일본고분자학회 부회장인 경도대학의 Yamaoka, 일본측 젊은 과학자로 오사카대학의 Ute 박사, 동경대학의 Yamashita 박사의 발표도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바이오 벤처포럼이 있었다. 바이오 분야의 벤처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80명 강의실이 만석을 이뤘으며, 이 분야 연구인력들이 고분자학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금요일 구두발표를 마친 후에는 신소재공학과 7층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무료 간담회를 시도하였다.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원 등의 신진 회원들이 부담없이 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료 간담회를 진행하며, 고분자학회에서는 순천대학에서 있을 추계학술대회 때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한양대학교는 최근 첨단 문헌정보시스템을 갖춘 백남학술정보관, 총회 장소인 한양종합기술원, 포스터 및 바이오 벤처포럼이 진행된 신소재공학관 등이 매우 깨끗하고 첨단 연구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올 가을에는 대한민국 고분자산업의 발상지인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가까이 하고 있고, 지리산과 남해바다를 끼고 있는 순천대학에서 밝은 모습으로 회원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글을 줄입니다.

〈조직이사 김성훈〉

